

서울시내 일부여고생들의 안경착용률 및 시력보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김 운 회 · 광 정 옥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 건강교육과)

목 차

I. 서 론	III. 결과 및 고찰
II. 대상 및 방법	IV.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근시안에는 유전성 요인도 일부 있으나 여러가지 환경적 조건도 후천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2), 3), 4)}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발전과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향상되었으며 첨단 물질문명과 접하는 복잡한 산업사회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여러가지 환경에 노출되게 되었다. 특히 학동기의 청소년들이 날로 치열해지는 대학입시에 따르는 과도한 학업뿐만 아니라 T.V. 시청, 부적절한 조명하에서 무리한 학습, 전자오락, 컴퓨터, 기계문명 등이 청소년의 근시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업화에 따른 전문화로 근거리에서 일하는 인구의 증가와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안질환 등이 근로자들의 시력장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⁵⁾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국민 보건 문제의 하나이다.

청소년기는 성장발육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안구가 성인과는 달리 환경조건에 쉽게 적응되는 까닭에 공부, 독서 등 장시간 동안 근거리에서 일을 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초기에는 가성근시가 유발되지만 이러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진성근시안으로 이행⁶⁾되어 결국에는 평생을 시력조정 안경을 착용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력저하의 사회

환경적 원인에 대한 예방가능한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력보호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내 일부 인문계 및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경(또는 콘택트렌즈) 착용 실태 및 시력저하 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력보호를 위한 학교보건계획과 보건교육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II. 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는 임의로 선정한 서울시내 인문계여고 2개교(27개학급)와 실업계여고 2개교(20개학급)의 1학년 전체학생을 학급단위로 구분하여 그 중 23개 학급(인문계 13개 학급, 실업계 10개 학급) 학생 총 1,328명(인문계 753명, 실업계 575명)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2. 조사방법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조사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학교의 교련교사 4명에 대하여 설문조사 취지와 응답 작성요령을 교육하였다. 각 교련교사는 소속학교의 조사대상 학급 교련시간에 들어가 먼저 대상자를 확인한

표 1. 조사대상 및 설문조사 회수율

계	영	조사대상 및 회수율	설문조사대상		설문지회수율	
			학급 수	학생 수	회수 수	%
인문계여고	1학년	A 교	6	344	319	92.7
		B 교	7	409	379	92.7
		소계	13	753	698	92.7
실업계여고	1학년	C 교	5	286	263	92.0
		D 교	5	289	268	92.7
		소계	10	575	531	92.3
합	계		23	1,328	1,229	92.5

다음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직접응답 기재하게 하고 설문지 회수시에 미비점은 즉각 보완하게 하였다. 본 조사는 1988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간중에 시행되었다.

회수한 설문조사지중에서 부실응답 13부(인문계 9부,

실업계 4부)를 제외한 1,216부에 대하여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Package를 이용 전산처리 계표화 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χ^2 -test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2. 학생의 안경착용률

단위 : %(N)

계	영	안경착용여부	안경착용학생	안경비착용학생	계	
인문계여고		A 교	57.5	42.5	100.0	(313)
		B 교	57.4	42.6	100.0	(378)
		소계	57.5	42.6	100.0	(691)
실업계여고		C 교	42.3	57.7	100.0	(260)
		D 교	41.1	57.9	100.0	(265)
		소계	41.7	58.3	100.0	(525)
합	계		50.7	49.3	100.0	(1,216)

$\chi^2 = 28.7$ P<0.001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학생의 안경착용실태

1.1 인문계 및 실업계 학생의 안경착용분포

인문계여고 1학년 학생의 안경착용률은 57.5%였고 실업계여고 1학년 학생의 안경착용률은 41.7%로 인문계여고생의 안경착용률이 실업계여고생에 비하여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나타내었다(표 2).

유승훈⁷⁾ 등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고생에 속하는 16

-18세 연령층의 안경착용률이 27.3%인 것에 비하여 본 조사결과가 50.7%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조사의 대상을 서울지역으로 제한한 지역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두희⁸⁾ 등의 연구에서는 대구시내 인문계 여고생의 안경착용률이 61.4%로서 본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인문계여고가 실업계여고 학생들 보다 안경착용률이 더 높은 것은 학력향상을 위한 과도한 학업시간과 야간 자율학습 등 무리한 환경 조건하에서 눈을 혹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1.2. 학생과 부모의 안경착용관계

안경착용학생의 가족집적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안경착용 여부에 따른 학생의 안경착용률을 알아보았다. 부모가 안경을 착용하고 학생이 안경을 착용한율은 인문계여고에서는 49.9%, 실업계 여고에서는 33.8%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학생이 안경을 착용한 경우가 안경을 쓴 전체 학생중에 55.8%로 나타났고 부모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학생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율은 65.7%로 나타나 안경착용학생과 비착용학생간의 가족집적현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표 3).

김두희⁷⁾ 등의 연구에서는 안경착용학생의 부모의 안경착용률이 15.4%였고 안경비착용학생의 부모의 안경착용률은 5.4%로 나타나 안경착용학생의 부모의 안경착용률이 안경비착용학생의 부모안경착용률보다 높았고 유승훈⁸⁾ 등의 연구에서는 근시안경의 가족집적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부분에서 부모가 모두 안경을 착용

하지 않은 군에서는 자녀안경착용률은 6.4%였으나 부모가 모두 안경을 착용하였을 경우에 자녀의 안경착용률은 34.2%로 나타나 본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Jeffrey⁹⁾는 부모의 시력이 자녀의 시력에 유전적 경향을 나타내며 특히 아버지와 아들사이보다 어머니와 딸사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시력은 유전적 경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1.3. 최근에 받은 시력검사시기

최근에 받은 시력검사시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인문계 여고생에서는 6개월전이 46.6%, 3개월전이 30.1%, 1개월전이 10.7%, 1년전이 12.6%였으며 실업계여고생에서는 3개월전이 53.5%, 6개월전이 34.7%, 1개월전이 6.3%, 1년전이 5.5%였다. 안경착용 학생에서는 6개월이 경과된 학생은 50.5%, 3개월전이 33.9%, 1개월전이 15.6%였고 안경비착용학생에서는 6개월이 경과된 학생은 51.4%, 3개월이 46.7%, 1개월전이 1.8%로 나타나 안경착용학생과 안경비착용학생간에 시력검사시기는 통계적

표 3. 학생안경착용률과 부모의 안경착용률 관계

단위 : %(N)

계열	부모 안경 착용 유무	부모중 안경 착용				양부모 비착용	계	
		양친	부친	모친	소계			
인문 계	안경착용학생	12.1	26.9	10.8	49.9	50.1	100.0	(397)
	안경비착용학생	14.6	17.0	7.8	39.5	60.5	100.0	(294)
	소 계	13.1	22.5	9.5	45.5	54.6	100.0	(691)
실업 계	안경착용학생	6.4	17.8	9.6	33.8	66.2	100.0	(219)
	안경비착용학생	6.9	13.7	8.8	29.4	70.6	100.0	(306)
	소 계	6.7	15.4	9.1	31.2	68.8	100.0	(525)
계	안경착용학생	10.1	23.7	10.4	44.2	55.8	100.0	(616)
	안경비착용학생	10.7	15.3	8.3	34.3	65.7	100.0	(600)
	합 계	10.4	19.6	9.4	39.3	60.7	100.0	(1,216)

$\chi^2 = 17.1$ P<0.01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4).
시력검사를 받은 시기가 6개월이상 경과된 학생은 전체적으로 51.5%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학생들에게 정

기적인 시력검사시기(약 6개월마다)를 알려주어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표 4. 최근에 시력검사를 받은 시기

단위 : %(N)

시 기		1개월전	3개월전	6개월전	1년전	계	
인문계	안경착용학생	16.9	25.9	44.8	12.4	100.0	(397)
	안경비착용학생	2.4	35.7	49.0	12.9	100.0	(294)
	소 계	10.7	30.1	46.6	12.6	100.0	(691)
실업계	안경착용학생	13.2	48.4	32.0	6.4	100.0	(219)
	안경비착용학생	1.3	57.2	36.6	4.9	100.0	(306)
	소 계	6.3	53.5	34.7	5.5	100.0	(525)
계	안경착용학생	15.6	33.9	40.3	10.2	100.0	(616)
	안경비착용학생	1.8	46.7	42.6	8.8	100.0	(600)
	합 계	8.8	40.2	41.5	9.5	100.0	(1,216)

$\chi^2=40.8$ P<0.001

1.4. 학생들이 안경을 처음 착용한 시기

안경착용 시작시기는 전체적으로 볼때 중학교때가 52.1%, 국민학교때가 31.3%, 고입후는 16.6%였다. 인문계 여고생에서는 중학교때가 46.6%, 국민학교때가 39.5%, 고입후는 13.9%이었고, 실업계 여고생에서는 중학교때가 62.1%, 국민학교때가 16.4%, 고입후는 21.5%로 인문계 여고와 실업계 여고간에 안경착용 시작시기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5).

김두희⁷⁾ 등의 연구에서 도시지역 여고생의 안경착용 시작시기는 중학교때가 52.1%, 국민학교때가 16.5%, 고등학교때가 31.4%로 나타나 본 조사결과와 일치하며 그 중 중학교때 안경착용률이 급격히 높은 원인은 고등학교 입학에 위한 과도한 학업으로 눈을 혹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교때가 신체변화가 많은 사춘기때이므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사려되어 이는 곧 청소년기의 집중적인 시력보호의 필

요성을 말해준다.

1.5. 학생들이 안경을 처방받았던 시설

안경처방을 병원안과에서 받았던 경우가 49.8%, 일반안경점에서 50.2%로 전체적으로는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인문계 여고생에서는 병원안과에서가 60.0%, 일반안경점에서는 40.0%였고 실업계 여고생에서는 병원안과에서가 31.5%, 일반안경점에서는 68.5%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나타내었다(표 6).

유승훈⁸⁾ 등은 학생들이 안과외사의 처방을 받는 비율이 58.5%로 일반인의 63.2%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병원안과에서 안경을 처방받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유의해야 할 사항이며 시력저하도 진행성임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고 전문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

표 5. 안경을 처음 착용한 시기

단위 : %(N)

계 열 \ 착용 시기	학 교			계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인문계여고생	39.5	46.6	13.9	100.0 (397)
실업계여고생	16.4	62.1	21.5	100.0 (219)
합 계	31.3	52.1	16.6	100.0 (616)

$\chi^2 = 36.2$ P<0.001

표 6. 안경을 처방받았던 사실

단위 : %(N)

계 열 \ 이용시설	병의원안과		계
	안 경 점	안 경 점	
인문계여고생	60.6	40.4	100.0 (397)
실업계여고생	31.5	68.5	100.0 (219)
합 계	49.8	50.2	100.0 (616)

$\chi^2 = 44.5$ P<0.001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시력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2.1. 학생들의 T.V. 시청거리에 관한 지식과 태도

T.V. 시청거리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20인치 T.V.를 시청하는 31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3-4m의 T.V. 시청거리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안경착용학생에서는 62.6%였고 안경비착용학생에서는 64.1%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3-4m의 T.V. 시청거리를 유지하는 학생은 안경착용 학생에서는 14.9%로 안경비착용 학생에서는 22.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은 3m미만의 거리에서 T.V. 시청을 하고 있었으며 또 3-4m가 T.V. 시청거리로 적당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지키는 학생은 안경착용 학생에서는 10.9%이고 안경비착용 학생에서는 17.9%를 나타내 T.V. 시청거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서 안경착용 학생과 안경비착용학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7).

김시환²⁾ 등은 T.V.를 2m거리 이내에서 시청하는 경우가 정상시력군에서는 44.2%인데 비하여 시력저하군에서는 58.6%로 나타났고 김승호¹⁾의 연구에서는 T.V. 시청거리가 적당한 군에서는 비정상시력안의 발생률이 6.0%였으나 부적당한 군에서는 18.7%로써 부적당한 군이 비정상시력안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박병일³⁾ 등은 비정상시력군의 발생비율이 T.V. 시청거리가 적당한 군에서는 19.6%였으나 부적당한 군에서는 24.1%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여 본 조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학생들이 대부분 T.V. 시청거리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T.V. 시청거리가 부적당할수록 안경착용률이 높다고 사료되어 올바른 T.V. 시청습관을 갖도록 보건교육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2.2. 학생들의 적정 독서거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학생들이 올바른 독서거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한

표 7. 적정 T.V. 시청거리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단위 : %(N)

지식		태도			3m미만	3-4m	4m 이상	계
		3m 미만	3-4m	4m 이상				
안경 착용 학생	3m 미만	25.9	0.6	0.0	26.4 (46)			
	3-4m	51.7	10.9	0.0	62.6 (109)			
	4m 이상	5.7	3.5	1.7	10.9 (19)			
	소계	83.3	14.9	1.7	100.0 (174)			
안경 비 착용 학생	3m 미만	29.0	1.4	0.0	30.3 (44)			
	3-4m	46.2	17.9	0.0	64.1 (93)			
	4m 이상	2.1	3.5	0.0	5.5 (8)			
	소계	77.2	22.8	0.0	100.0 (145)			
계	3m 미만	27.3	0.9	0.0	28.2 (90)			
	3-4m	49.2	14.1	0.0	63.3 (202)			
	4m 이상	4.1	3.5	0.9	8.5 (27)			
	합계	80.6	18.5	0.9	100.0 (319)			

$\chi^2=12.9$ P<0.01

표 8. 적정 독자거리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단위 : %(N)

지식		태도			계
		20cm 전후	30cm 전후	40cm 전후	
안경 착용 학생	20cm 전후	21.8	1.0	0.0	22.7 (140)
	30cm 전후	60.6	14.0	0.2	74.7 (460)
	40cm 전후	1.1	1.1	0.3	2.6 (16)
	소계	83.4	16.1	0.5	100.0 (616)
안경 비 착용 학생	20cm 전후	18.6	1.2	0.2	20 (120)
	30cm 전후	61.5	16.1	1.0	78.8 (473)
	40cm 전후	0.3	0.7	0.2	1.2 (7)
	소계	80.7	18.0	1.4	100.0 (600)
계	20cm 전후	20.2	1.1	0.1	21.4 (260)
	30cm 전후	61.1	15.0	0.6	76.7 (933)
	40cm 전후	0.7	0.9	0.2	1.9 (17)
	합계	82.0	17.0	0.9	100.0 (1,216)

$\chi^2=4.3$ P<0.05

실천에 옮기는가를 알아 보았다. 독서거리를 30cm 전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30cm전후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경착용학생에서는 14.0%였고 안경비착용 학생에서는 16.1%였으나, 적당한 독서거리를 30cm전후로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20cm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안경착용 학생에서는 60.6%였고 안경비착용 학생에서는 61.5%로 나타나 상당수의 학생이 적당한 독서거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거리에서 독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경착용학생과 안경비착용 학생의 독서거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모순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김재찬¹⁰⁾ 등은 독서를 할 때 거리가 20cm이내의 거리에서 독서하는 학생의 시력이 저하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해 본 조사의 결과와는 다른 차이를

보였다. 비록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의 독서는 시력보호에 좋지 않음을 주시시켜 적당한 간격에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하겠다.

2.3. 학생이 생각하는 시력저하원인

중학교 3학년때에 비해서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응답한 학생 632명을 대상으로 학생자신이 생각하는 시력저하의 원인에 대한 조사설문에서 T.V. 시청습관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0.1%, 독서습관때문이 전체의 14.9%, 공부방 조명때문이 8.2%, 유전적 소인때문이 3.2%를 차지해 학생들이 시력저하 요인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T.V. 시청습관이었으며, 인문계에서는 T.V. 시청습관 때문이 53.0%, 독서습관이 20.6%, 공부방의 조명이 9.3%, 유전적 소질이 3.9%였고, 실업계에서는 T.

표 9. 시력저하 원인에 대한 본인의 견해

단위 : %(N)

계열	시력저하 원인	T.V. 시청 습관	독서습관	공부방의 조 명	유전적 소 질	기 타	계
인 문 계	안경착용	53.8	20.4	8.8	5.0	11.9	100.0 (260)
	안경비착용	50.5	21.1	10.5	1.1	16.8	100.0 (95)
	소 계	53.0	20.6	9.3	3.9	13.2	100.0 (355)
실 업 계	안경착용	71.9	7.2	4.6	2.0	14.4	100.0 (153)
	안경비착용	66.1	8.1	9.7	2.4	12.7	100.0 (124)
	소 계	69.3	7.6	6.9	2.2	14.1	100.0 (277)
계	안경착용	60.2	15.5	7.3	3.9	12.9	100.0 (413)
	안경비착용	59.4	13.7	10.1	1.8	15.1	100.0 (219)
	합 계	60.1	14.9	8.2	3.2	13.5	100.0 (632)

$\chi^2=3.9$ P<0.05

V. 시청습관이 69.3%, 독서습관이 7.6%, 공부방의 조명이 6.9%, 유전적 소질이 2.2%로 인문계와 실업계여고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안경착용 학생과 안경비착용 학생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

김두희⁷⁾ 등의 고등학교 안경착용 학생에 대한 시력저하 요인 조사에서는 T.V. 시청이 41.3%, 독서습관이 25.4%, 조명이 28.3% 유전적 소인이 1.8%로 나타났고 이상진¹¹⁾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한 눈이 나빠진 원인에 관한 보고에서는 T.V.를 가까이 보아서가 28.8%, 책을 가까이 보아서가 17.1%, 건강상의 이유가 4.9%로 나타나 본 조사결과와 비슷하였다. 학생들이 시력저하의 원인을 유전적 소인보다는 후천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이에 맞는 보건교육내용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시력저하를 예방하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3. 시력보호를 위한 보건교육의 필요성

3.1. 시력보호를 위한 보건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

시력보호를 위한 학교보건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학생중 80.8%가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인문계 여고생에서는 안경착용 학생의 80.2%, 안경비착용 학생의 78.0%가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실업계 여고에서는 안경착용 학생의 84.0%, 안경비착용 학생의 92.1%가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표 10).

시력저하의 유발요인이 유전적 소인도 있지만 사회환경적 요인이 시력저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보건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73년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국민학교의 보건과목이 개정되었고 중고등학교 보건과목의 교육과정도 개정된바 있지만 교육과정의 개정에 못지

표 10. 시력보호에 관한 보건교육의 필요성

단위 : %(N)

계열	보건교육의 필요성			계		
	필요하다	필요치않다	잘모르겠다			
인문계	안경착용학생	80.2	4.5	15.4	100.0	(397)
	안경비착용학생	78.0	5.8	16.3	100.0	(294)
계	소 계	79.2	5.1	15.7	100.0	(691)
실업계	안경착용학생	84.0	4.1	4.9	100.0	(219)
	안경비착용학생	92.1	3.9	14.1	100.0	(306)
계	소 계	82.9	3.9	13.2	100.0	(525)
계	안경착용학생	81.5	4.4	14.1	100.0	(616)
	안경비착용학생	80.0	4.8	15.2	100.0	(600)
합	계	80.8	4.6	14.6	100.0	(1,216)

$\chi^2=0.08$ P<0.05

않게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 문제이다.¹¹⁾ 생물, 체육, 가사 등의 교사로 하여금 보건을 가르치게 하는 것보다는 각급학교에서 보건교사를 채용하고 보건교육시간을 따로 책정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보건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인 건강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사료된다.

3.2. 시력보호를 위한 예방행위에 관한 학생들의 견해

시력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행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주의해야 할 행위로는 안경착용 학생에서는 T.V. 시청습관을 바르게 갖는다가 83.3%, 독서습관을 바르게 갖는다가 86.2%, 정기적으로 시력측정을 받는다가 29.2%, 눈에 좋은 약이나 음식을 복용한다가 78.9%, 공부방의 조명을 조절한다가 49.0%로 나타났다. 안경착용 학생에서는 T.V. 시청습관을 바르게 갖는다가 83.7%, 독서습관을 바르게 갖는다가 85.3%, 공부방의

조명을 조절한다가 69.3%, 눈에 좋은 약이나 음식을 87.3%, 눈을 혹사하지 않는다가 36.4%로 나타났다(표 11).

예방행위에 관한 응답내용을 볼 때 보건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보건교육 교과내용에 시력보호에 대한 부분을 첨가시켜 시력저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가지 제한점은 안경착용률 조사로써 여고생들의 정상시력분포를 가늠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시안이면서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시력측정을 해보지 않아 근시안이 되었는지도 미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안경비착용자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경비착용자가 곧 정상시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본 연구결과 해석시에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표 11. 시력보호를 위한 예방행위에 관한 학생들의 견해

단위 : %

예방행위	안경착용여부		계
	안경착용학생	안경비착용학생	
올바른 T.V. 시청	83.3	83.7	83.5
올바른 독서습관	86.2	85.3	85.8
공부방의 알맞은 조명	49.0	69.3	59.0
눈에 좋은 약이나 음식복용	78.9	87.3	83.1
눈을 혹사하지 않는다	36.4	45.7	41.0
정기적인 시력측정	29.2	22.2	25.7
안 구 운 동	28.6	25.3	27.0
응답자수	616	600	1,216

IV. 결 론

본 연구는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안경착용상태와 시력보호를 위한 학생들의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일부 인문계 여고와 실업계 여고 1학년 학생중 임의추출한 1,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본 조사대상자의 안경착용률은 인문계 학생이 57.5%, 실업계 학생이 41.7%였다.
2. 부모중 한분이라도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중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비율은 인문계 학생에서는 49.9%, 실업계 학생에서는 33.8%였다.

3. 최근 시력검사를 받은 시기에 있어서 6개월이상 경과된 경우가 안경착용 학생에서는 57.2%, 실업계 학생에서는 38.4%였고, 안경비착용 학생에서는 인문계 학생이 61.9%, 실업계 학생이 41.5%였다.

4. 안경을 처음 착용한 시기는 국민학교때 착용이 인문계 학생은 39.5%, 실업계 학생은 16.4%였고, 중학교때 착용이 인문계 학생은 46.6%, 실업계 학생은 62.1%였으며, 고등학교때 착용이 인문계 학생은 13.9%, 실업계 학생은 21.5%였다.

5. 안과병의원에서 안경처방을 받은 학생은 인문계 학생은 60.6%, 실업계 학생은 31.5%였고 나머지 학생들은 안경점에서 안경을 처방받고 있었다.

6. 인문계나 실업계나 안경의 착용, 비착용에 상관없이 80%이상의 응답학생들이 적정 T.V. 시청거리(3m이상)와 적정 독서거리(30cm전후)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7.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시력저하 요인은 부적절한 T.V. 시청거리유지(60.1%), 부적절한 독서거리유지(14.9%), 공부방의 조도부족(8.2%), 기타(3.2%) 등이었다.

8. 시력보호를 위한 학교보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인문계 학생에 있어서는 72.9%, 실업계 학생에 있어서는 82.9%이었으며 안경착용 학생에 있어서는 81.5%, 안경비착용 학생에 있어서는 80.8%이었다.

9. 시력보호를 위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주의해야 할 행위로는 안경착용 학생에서는 83.3%가 T.V.의 올바른 시청습관이라고 하였고, 86.2%가 올바른 독서습관이었으며, 안경비착용 학생에 있어서는 83.7%가 올바른 T.V. 시청습관, 85.3%가 올바른 독서습관, 공부방의 조명 조절이 6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김승호(1983), "시력저하 요인의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시한, 김상민(1977), "학동 근시의 원인에 관한 조사", 「대한안과학회잡지」, Vol. 18, No. 1, pp. 45-47.
3. 박병일, 박영태, 홍경식(1979), "대학 입시생의 안 상태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안과학회잡지」, Vol. 20, No. 4, p. 105.
4. 유승훈, 이용호, 조우현(1987), "우리나라 안경착용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Vol. 20, No. 1, pp. 120-125.
5. Goldschmidt E. (1968), "On the etiology of myopia : An epidemiologic study", Acta Ophth. Suppl, Vol. 46, p. 98.
6. 김기창(1968), "시력 및 굴절에 관한 연구", 「대한안과학회잡지」, Vol. 9, No. 4, pp. 36-37.
7. 김두희, 장병화(1987), "고등학교 학생의 안경착용 실태", 「대한안과학회잡지」, Vol. 13, No. 2.
8. Jeffy. T. K(1973), "A Comparison of the Refractive Status of myopic Children and their parents : American Journal of optometry and Archieves of America : Academy of optometry, p. 208.
9. 박병일, 박영철, 이홍수, 제규원(1978), "학동의 시력 및 굴절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안과학회잡지」, Vol. 19, No. 4, p. 47.
10. 김재찬, 구본술(1988), "도시학동의 시력장애와 근시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대한안과학회잡지」, Vol. 29, No. 1, p. 176.
11. 김명호(1980), "우리나라 학교보건현황", 「대한의학협회지」, Vol. 123, No.5, p. 359.

<Abstract>

A Study on Girls' High School Students for Knowledge and Practice of Eyesight Care

Yun Hi Kim, Jung Ok Kwak

(Dept. of Healt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practical information about eyesight care-preventing refractive error and actual conditions of wearing glasses(or contact lenses) to help school health education, For this study, 1,216 freshmen were sampled from lib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s in Seoul and the survey was successfully accomplished.

Following are the major findings results of this study :

1. The percentage of the freshmen wearing glasses in girls high school were 57.5 percent in liberal high school and 41.7 percent in vocational high school.
2. The percentage of both the students and parents wearing glasses were 49.9 percent in liberal high school and 33.8 percent in vocational high school.
3. From the survey,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began to wear glasses during their middle school years. The percentages were 46.6 percent in liberal high school and 62.1 percent in vocational high school.
4. The percentage of the students who got their glasses prescribed from an ophthalmic clinic were 60.6 percent in liberal high school, 31.5 percent in vocational high school and the rest got their glasses from the optician..
5. The percentage of the students wearing glasses who didn't have optometry check-up for 6 months were 57.2 percent in liberal high school and 38.4 percent in vocational high school. The percentage of the students not wearing glasses in the same situation were 61.9 percent in liberal high school and 41.5 percent in vocational high school.
6. The percentage of the students who believe that the health education in school i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amblyopia were 79.2 percent of students attending in liberal high school, 82.9 percent in vocational high school, 81.5 percent of students wearing glasses and 80.8 percent of students not wearing glasses.